

## 해외곡물시장 뉴스



# 해외곡물시장 뉴스



<p><b>북아메리카</b></p> <p><b>미국</b> 미국 중서부지역, 한파로 밀생장 차질 미국의 에탄올 수출증가로 미국산 옥수수 가격 상승 전망 인포마, 2015년 옥수수 파종전망 상향조정</p>	<p><b>아시아</b></p> <p><b>일본</b> 일본, 겨울의 엘니노 발생가능성 상향조정</p>
<p><b>남아메리카</b></p> <p><b>브라질</b> 브라질 대두파종 확대 그러나 평균에는 뒤쳐짐</p> <p><b>아르헨티나</b> 지난주 아르헨티나 대두파종 확대</p>	<p><b>유럽</b></p> <p><b>러시아</b> 러시아 밀가격, 루블의 지속적 약세로 상승 러시아 겨울곡물, 온화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차질우려</p> <p><b>영국</b> 영국 및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조류독감, 인명피해는 거의 없을 듯</p>

## 1. 미국

### ■ 미국 중서부지역, 한파로 밀생장 차질

금주 미국 중서부지역의 한파로 늦게 파종된 적색연질 겨울밀의 생장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주리 및 일리노이 지역은 겨울밀 파종이 뒤쳐졌으며 금주 기온은 화씨 15-20도(섭씨 영하 7-9도)로 하락할 것이다. 기상학자에 따르면, 향후 2주간의 한파는 겨울밀 발아에 차질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동사의 상황은 아니며 생장에 차질을 주는 정도이다. 이와 같이 겨울동면을 앞두고 이상적이지 않은 기후를 겪게 되면, 밀작물은 봄의 이상적인 기후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USDA에 따르면, 일요일 기준 일리노이 지역 밀작물의 52%가 발아를 시작하였으나 이는 5년 평균 74%에 못 미친다고 한다. 파종은 84% 완료한 상황이다.

한편, 중앙평야는 화씨 0도(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더 많이 하락했으나, 이 지역의 겨울밀 생장은 많이 진행되어 네브래스카 및 북동부지역 콜로라도 등 소규모 밀재배지역에 비해 피해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4.11.12.)

### ■ 미국의 에탄올 수출증가로 미국산 옥수수 가격상승 전망

미국의 사상최대 옥수수 수확에 따른 에탄올 수출확대로 내년에는 옥수수가격이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에탄올 수출은 브라질에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브라질이 에탄올 생산에 있어서 매우 경쟁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기이한 현상이다. 즉, 이러한 미국의 브라질 및 세계 다른 곳으로의 에탄올 수출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현재의 낮은 가격에서 2015년 높은 가격으로 이끄는 다른 요소로는 동물사료에 대한 수요증가 전망도 있을 것이다. 주요 옥수수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옥수수 수요는 내년에도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부 농가들은 올해 최대 옥수수 수확이후 옥수수에서 다른 작물로 생산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 달러화 강세 등 부정적인 외부환경하에서는 부셸 당 3.6-3.8달러, 긍정적인 외부환경하에서는 부셸 당 4.2-5.2달러 범위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2월분 옥수수의 수요일 선물가격은 부셸 당 3.73달러로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다. (2014.11.12.)

## ■ 인포마, 2015년 옥수수 파종전망 상향조정

민간 리서치업체인 인포마 이코노믹스(Informa Economics)는 2015년 옥수수 파종전망을 88.831백만 에이커로 상향조정했으며, 2015년 대두파종은 88.322백만 에이커로 하향전망하였다. 그러나 대두 파종전망은 여전히 사상최대 수준일 것이다. 지난달, 인포마는 2015년 옥수수 파종면적을 87.8백만 에이커, 대두 파종면적을 88.5백만 에이커로 전망했었다. USDA에 따르면 농가들은 2014년에 옥수수 90.9백만 에이커, 대두 84.2백만 에이커에 대해 파종을 마쳤다고 한다.

한편, 인포마는 2015년 밀파종을 이전 추정치인 56.4백만 에이커에서 56.813백만 에이커로 상향조정했다고 한다. USDA에 따르면, 2014년 밀파종은 5.68백만 에이커였다고 한다. 인포마는 2015년 겨울밀 파종에 대해서도 41.8백만 에이커에서 42.246백만 에이커로 상향조정했다고 한다. 전체 신곡은 적색경질 겨울밀 30.9백만 에이커, 적색연질 겨울밀 7.9백만 에이커, 백색 겨울밀 3.4백만 에이커를 포함한다.

한편, 2014년 면화 파종면적에 대해서는 9.430백만 에이커로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달 전망치인 9.455백만 에이커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2014.11.15.)

## 2. 브라질

### ■ 브라질 대두파종 확대 그러나 평균에는 뒤처짐

지난주 브라질 대두 재배지역의 강우로 인해 대두 목표면적의 46%의 파종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전주 29% 대비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년 59%, 5년평균 61%에 비하면 파종이 아직 뒤쳐져있는 상황이다. AgRural 주간보고서에 따르면, 강우가 아직 완전히 정상적이지는 않으나 11월 첫 주 강우는 대두파종에 이상적인 강우량이었다고 한다. 대두파종 지연은 대두수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옥수수 및 면화 등의 이기작물의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항구의 물류체증

을 야기할 수 있다. 대두파종은 최대 생산지역인 마토 그로소 등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지연되었다. 금요일 기준 목표재배면적 8.8백만 헥타르 중 66.9%의 파종을 마쳤으나 전년 86%에 대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2014.11.11.)

### 3. 아르헨티나

#### ■ 지난주 아르헨티나 대두파종 확대

아르헨티나 농가들은 올해 예상 파종면적 16.8%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4/15 곡물연도 대두파종을 지난주 9.6% 확대하였다. 파종면적 확대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지역은 북부 및 남부 핵심 농가지역으로 이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엔트레리오스, 산타페 지역을 포함하며, 라팜파주 북부지역 역시 빠른 파종면적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2014/15 곡물연도 오일시드 파종면적은 20.6백만 헥타르로 전망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두나 옥수수에 대한 수확전망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에서 아직 발표된 바가 없으며, USDA에 따르면 2014/15년 옥수수 수확은 23백만 톤, 대두는 55백만 톤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금주 초 로사리오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농가들은 2014/15년 대두파종은 20.7백만 헥타르, 상업용 옥수수는 21.5백만 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2014.11.14.)

### 4. 일본

#### ■ 일본, 겨울의 엘니뇨 발생가능성 상향조정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엘니뇨 발생가능성은 전월 전망치인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상적인 기후패턴이 겨울내내 지속될 것이나 엘니뇨 발생가능성은 높게 전망되고 있다. 엘니뇨는 태평양 해수면 온난화 현상으로 동남아시아 및 호주에는 가뭄을, 남미에는 홍수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쌀, 밀, 원당과 같은 주요 식량생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다. (2014.11.10.)

## 5. 러시아

### ■ 러시아 밀가격, 루블의 지속적 약세로 상승

러시아산 밀의 수출가격은 현지화폐인 루블의 약세로 지난주 급등했다. 루블은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로 달러대비 약 25% 하락했다고 한다. 지난주만 해도 3% 이상 하락했다. 러시아 농업민간연구소인 Sovecon에 따르면, 루블약세는 러시아 밀에 대한 수출수요를 활발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단백질 함량 12.5%인 러시아산 밀의 지난주 수출가격은 톤당 253.5달러로 전주대비 10.5달러 상승했으며 이는 심해항 FOB가격이다. 러시아는 2014/15년 14.6백만 톤의 곡물을 수출했으며 이는 12.1백만 톤의 밀을 포함한다. 수출속도는 전년대비 31% 상승했으며 거의 사상최대 수준이다.

한편, Sovecon에 따르면, 향후에도 러시아산 밀에 대한 수출은 지속될 것이나, 러시아의 이상적이지 않은 기후에 따른 국내 일부지역(시베리아) 수확차질로 국내 가격도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주 시베리아 지역의 3등급 밀 가격은 900루블(20달러) 상승했다. 시베리아 지역의 작물은 러시아의 수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소농을 제외한 10월1일 기준 러시아의 국내곡물비축량은 전년대비 26.6% 상승한 44백만 톤이다. 우랄 및 시베리아의 밀지역은 깊은 적설 및 심각한 서리로 인해 농작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10월30일 기준, 시베리아 지역의 곡물수확은 14.1백만 톤으로 재배면적의 96%에 해당하며 전년 16.6백만 톤 대비 감소한 수준이다. 한편, 다음연도 겨울곡물 파종은 거의 농작업을 마친 상황이며 16.4백만 헥타르로 재배면적의 99.4%에 해당한다. (2014.11.5.)

### ■ 러시아 겨울곡물, 온화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차질우려

지난주 러시아의 온화한 기후는 겨울곡물의 불안정한 파종우려를 완전히 해결 해주지 못하여 내년 수출의 잠재적감소 위험이 있다. 러시아는 2014/15년 유럽연합 및 미국을 뒤흔는 세 번째 최대 밀수출국이기 때문에, 올가을 이른 한파로 인한 러시아 겨울곡물 약화는 곡물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높은 동사위험 및 최근 평균보다 낮은 수율이 전망된다. 다만 11월의 비교적 온화한 기후에도

는 밀파종에 이상적일 것으로 보이며 특히 러시아 남부지역이 수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들은 계획재배면적의 99.5%인 16.4백만 헥타르에 대한 파종을 마친 상황이며 이는 전년동기 14.5백만 헥타르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러시아 농산물시장민간연구소 소브에콘(Sovecon)에 따르면, 2015년 곡물 생산은 90백만 이하로 하락하며 그 중 밀도 50백만 톤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곡물수확량은 108.3백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2015/16년 밀수출도 16-18백만 톤으로 올해 추정치인 23백만 톤 대비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원유가격 하락 및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으로 인한 미 달러화 대비 루블 가치절하(올해 25%하락)도 내년도 작물에 추가적인 위험을 가하고 있다. 투입비용 증가우려 등으로 일부 농가들은 곡물을 판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며, 자금이 필요할 시에는 해바라기 판매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 2-3월 봄파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시기쯤 바뀔 것이다. (2014.11.7.)

## 6. 영국

### ■ 영국 및 네덜란드에서 발견되 조류독감, 인명피해는 거의 없을 듯

네덜란드 닭에서 조류독감이 발견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월요일, 영국 한 오리 농가에서도 조류독감이 발견되었다.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나, 영국당국은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수출을 금지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의하면, 유럽에서 발견된 조류독감은 아시아로부터 이주해온 야생조류에 의한 전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국은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인해 수십만의 농장가금류를 살처분했다. 또한,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는 공중보건 위험도 낮으며 먹이사슬에 미치는 피해도 낮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달 초 독일에서도 조류독감이 발견됐다. 당국은 아직 독일, 네덜란드 및 영국의 조류독감 연관성이라든가 아시아의 조류독감과 관련성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내린 바는 없으나 모든 사건은 연관되어 있음을 의심하고 있다.

독일 및 네덜란드의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H5N8이며, 이는 가금류간에 전염가

능성이 높은 바이러스이며 H5N1과는 달리 사람의 체내에서 발견된 적은 결코 없는 종이다. H5N1은 2003년 이후 아시아 및 중동에서 발견되어 약 400명의 인명 피해를 야기하며 세계를 불안에 떨게했던 바이러스이다. (2014.11.18.)

